

조화성 · 고승분 지음 | 정대영 옮김

# 중국 고고학 진·한



20世紀中國文物考古發現與研究叢書

## 秦漢考古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4

## 중국 고고학 진·한

2017년 8월 15일 초판 1쇄 인쇄

2017년 8월 25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조화성, 고승문  
옮긴이 정대영  
펴낸이 윤철호, 김친희  
펴낸곳 (주)사회평론아카데미

편집 고인옥  
표지 디자인 김진운  
본문 디자인 민들레  
마케팅 강상희

등록번호 2013-000247(2013년 8월 23일)  
전화 02-2191-1133  
팩스 02-326-1626  
주소 039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17(1층)

ISBN 979-11-88108-27-5

©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서문

진한 고고학(秦漢考古學)은 중국 역사고고학의 범주에 속한다. 역사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기원전 221년 진(秦)의 통일에서 서기 220년 동한(東漢) 멸망까지 해당한다. 이는 진대(秦代), 서한(西漢), 신(新), 동한(東漢)의 4개 왕조에 걸친 400여 년의 역사이다. 그러나 고고학 문화의 연대범위는 역사 연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그 전후에 어느 정도의 신축성이 있다. 지역적 범위는 현재 중국 영역의 경계를 기본으로 하며 한족(漢族) 주체인 한문화(漢文化)지역과 같은 시기 주변 소수민족문화지역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진한 고고학은 진한 시기의 고고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진한 고고학의 전신(前身)은 방지학(方志學)과 금석학(金石學)이다. 위진남북조와 수당오대(隋唐五代) 시기의 많은 지리, 방지, 문학저작들에 서는 다수의 진한 시기 유적과 유물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북위(北魏) 려도원(酈道元)의 『수경주(水經注)』와 당대(唐代) 이길보(李吉甫)의 『원화군현도지(元和郡縣圖志)』에는 진한 시기 고성(古城), 고묘(古墓), 비각(碑刻) 등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비록 간략하지만 일부 유적의 경우에는 오늘날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송과 명청 시기의 금석학 연구로 수집된 진한 시기 고물(古物)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구분하면, 내체로 비각(碑刻)을 비롯하여 전와(磚瓦), 화폐[錢幣], 동경(銅鏡), 인장[璽印], 봉니(封泥), 도문(陶文) 명기(明器), 청동기(吉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목록의 편집과 문자의 기록, 탁본도보(圖譜)의 제작, 표제와 발문의 고증을 내용으로 하는 백여 종이 넘는 저작들이 전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금석학에서 이루어진 진한 고물(古物)에 대한 기록과 고증은 현재의 진한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20세기 전반기에 진행된 중국 서북지역에 대한 탐험조사 및 출토간독(簡牘)에 대한 연구와 동북지역의 한묘(漢墓) 발굴은 근대 고고학 의미에서 진한 고고학의 시작이다.

과학적인 야외조사와 발굴은 근대 고고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며 전통적 금석학과 구분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먼저 외국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후 중국학자들이 참여한 서부지역에 대한 탐험조사와 변세(邊塞)의 간독 연구는 진한 고고학의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탐험활동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지리탐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근대 고고학과 구체적인 관련성을 언급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헤딘(Sven Anders Hedin)과 스타인(Mark Aurel Stein), 타치바나 주이초(橘瑞超) 등에 의해 진행된 여러 차례의 탐험활동에서도 고대 유적에 대한 조사와 측량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모의 발굴도 진행되었다. 비록 이러한 조사와 발굴이 대부분 보물찾기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조사과정의 기록수단과 연구방법은 이미 근대 고고학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부탐험활동보다는 늦은 시기에 진행되었지만 일본의 중국침략과 더불어 일본인에 의해 중국 동북지역에서 다수의 한묘가 발굴되었으며 발굴보고서도 출간되었다. 중국학자들도 이 시기 100여 기의 한묘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20세기 전반의 근대 고고학 이론과 방법은 주로 선사시대와 하상주(夏商周)의 삼대(三代)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고고학 조사와 발굴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연구 사료(史料)가 풍부한 진한 시기를 비롯한 이후 시기의 고고학적 성과는 부족하였다. 이 시기, 진한 고고학에서 전통 금석학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49년 건국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고고학 조사와 발굴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고고학 자료도 축적되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전문화된 연구와 종합연구도 초보적인 성과를 축적하면서 진한 고고학의 편년

과 연구영역의 체계가 수립되었다.

건국 이후, 중국 고고학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먼저 중앙과 지방에서 문물관리와 연구를 위한 기관들이 설립되어 중국과학원에 고고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북경대학과 서북대학을 비롯한 대학에 고고학전공이 개설되었다. 이는 중국 고고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경제건설의 전면적인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이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되었고 이를 수반한 구제발굴이 고고학 조사의 중점이 되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발굴된 한묘의 수량은 1만여 기에 이른다. 대형 한묘의 발굴은 기남(浙南) 화상석묘의 발굴과 허린거얼(和林格爾) 벽화묘의 발굴이 대표적이며, 중소형 한묘의 발굴은 낙양 소구한묘(瀋溝漢墓)의 발굴과 편년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구제발굴 이외에도 계획적인 고고학 조사와 발굴도 함께 전개되면서 서한장안성(西漢長安城), 동한낙양성(東漢洛陽城), 진한제릉(秦漢帝陵)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기에서 70년대 전반기에 걸친 문화혁명의 10년 기간은 고고학 발굴조사가 기본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와 만성한묘(滿城漢墓)와 같은 중대 발견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시기 종합적 연구는 1950년대 말에 출간된 『신중국의 고고학 성과(新中國的考古收穫)』에서 건국 이래 10년 기간의 진한 고고학의 성과들이 개괄적으로 정리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유위초(俞偉超)에 의해 집필된 북경대학 고고학전공의 『전국진한고고(戰國秦漢考古)』 강의서에서 진한 고고학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함께 진한 고고학의 편년과 체계가 수립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말까지, 중요한 고고학 발견이 차례로 이어졌으며 고고학 자료의 축적은 더욱 풍부해졌다. 종합연구는 점차 심화되었으며 진한 고고학 가운데 일부 전문화된 연구 분야가 출현하였다.

문화혁명의 정치운동이 끝난 후에 중국 고고학은 대발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대규모의 야외조사가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되었다. 진시황릉과

녕마용, 한장안성 미양궁(未央宮), 경제(景帝) 양능(陽陵), 선제(宣帝) 두릉(杜陵) 및 남월왕묘(南越王墓) 등의 10여 기 대형 제후·열후묘(列侯墓)가 발굴되어 한대(漢代)문명의 찬란함을 보여 주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발굴된 중소형 한묘는 대략 10만여 기에 이르며 이를 통해 한대 지역문화의 특징을 인식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고고(考古)』, 『문물(文物)』, 『고고학보(考古學報)』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10여 종의 고고학 잡지에 다수의 진한 고고학 자료가 발표된 것 이외에도 20여 권의 정식 발굴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진한 고고학 자료의 이러한 지속적 축적은 종합연구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켰다. 현재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연구논문은 1천여 편에 이르며 전문저서도 수십 권이 출간되면서 진한 고고학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1980년대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펴낸 『신중국의 고고학 발견과 연구(新中國的考古發現和研究)』와 『중국대백과전서·고고권(中國大百科全書·考古卷)』, 왕중수(王仲殊)의 『한대고고학개설(漢代考古學概說)』과 90년대 산둥대학, 남경대학, 사천대학에서 펴낸 『전국진한고고(戰國秦漢考古)』 강의서는 진한 고고학에 대한 체계적인 논술과 정리를 하였다. 이 시기의 또 다른 변화는 진한 고고학의 일부 전문화된 연구 분야가 형성된 것이다. 진한 시기 간백(簡帛)의 발견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대화상석, 화상전, 벽화, 백화(帛畫) 등의 미술 고고 자료의 축적은 한화(漢畫)라는 새로운 전문분야를 탄생시켰다. 또한 주변 소수민족 고고학의 새로운 발견은 독립적인 연구영역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진한 고고학 연구는 이제 더 이상 고고학 연구자의 전리품(專利品)이 아니며, 고대사, 사상사, 예술사, 과학사 연구자들도 새로운 자료에서 영감을 섭취하며 관련 학과의 연구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세기 진한 고고학의 발견과 연구는 많은 성과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정리할 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지적된다. 먼저 일부 지역의 경우 대부분 선사시대와 삼대(三代) 고고학에 치중함으로써 진한 시기를 포함한 역사 시기의 고고학 연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미 발굴

된 진한 시기 무덤(墓葬)의 수량은 상당량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아직 정리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구경향과 관련해서는 대형 한묘가 중시되면서 중소형 한묘에 대한 경시봉조를 비롯하여, 도시(城市) 유적을 중시하고 촌락(村落) 유적은 경시하는 경향,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미약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종합연구의 수준도 보다 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중국 고고학은 진한 고고학 연구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진한 고고학의 기초적인 연구와 더불어 진한 시기의 정신영역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고고학 자료의 축적을 통해 진한사(秦漢史)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 진한 고고학의 목표가 되고 있다.

# 차례

## 서문 5

### 1장 진도(秦都) 함양(咸陽)과 진시황릉에 대한 고고학 발견과 연구 15

- 1. 진도 함양에 대한 고고조사와 발굴 15
  - 1) 궁전 유적 16
  - 2) 수공업공방 유적 20
  - 3) 함양 부근의 능묘(陵墓)구역 21
  - 4) 진도 함양에 대한 종합연구 23
- 2.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의 고고학 발견 25
  - 1) 능원의 건축 유적 25
  - 2) 능원 주변의 배장갱 30
  - 3) 배장묘 35
  - 4) 형도(刑徒)무덤과 수능(修陵)의 공장(工匠)무덤 36
  - 5) 진시황릉과 병마용의 고고자료 37
- 3. 요령성 수중(綏中) 강녀석(姜女石) 행궁(行宮) 유적 38

### 2장 서한 장안성과 동한 낙양성 및 한대 제릉(帝陵) 41

- 1. 서한 장안성의 조사, 발굴과 연구 41
  - 1) 성벽, 성문 및 내부도로 43
  - 2) 궁전과 무고 45
  - 3) 시장, 수공업 유적, 주거구역 50
  - 4) 남교(南郊)의 예제성(禮制性) 건축군 51
  - 5) 장안성 주변의 기타 건축 유적 53
  - 6) 한대 장안성의 종합연구 54
- 2. 동한 낙양성의 조사, 발굴과 연구 57
- 3. 서한 황제릉의 조사, 발굴과 연구 65
  - 1) 서한 제릉 65
  - 2) 동한 제릉 74

### 3장 한대 제후왕과 열후 무덤의 발굴과 연구 77

- 1. 한대 제후왕묘 79
  - 1)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 제후왕묘의 발굴과 연구 79
  - 2)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제후왕묘의 발굴과 연구 81
  - 3)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제후왕묘의 발굴과 연구 91
- 2. 한대 열후묘 102
  - 1) 1950~60년대 열후묘의 발굴과 연구 102
  - 2) 1970년대 열후묘의 발굴과 연구 104
- 3. 제후왕과 열후묘에 대한 종합연구 110

### 4장 한대 중소형 무덤의 발굴과 분구(分區), 분기(分期) 연구 115

- 1) 낙양(洛陽) 중심의 증원지역 한묘 118
- 2) 관중지역의 한묘 120
- 3) 하서(河西)지역과 청해(青海) 동부지역의 한묘 122
- 4) 북방 장성지대(長城地帶)의 한묘 125
- 5) 동북 및 하북 북부, 북경지역의 한묘 127
- 6) 산둥과 강소성 북부 및 주변지역의 한묘 128
- 7) 장강 중류지역의 한묘 130
- 8) 장강하류(江南)지역의 한묘 132
- 9) 서남(西南)지역의 한묘 134
- 10) 양광(兩廣)지역의 한묘 136

### 5장 한대 화상석, 화상전, 벽화, 백화의 발견과 연구 139

- 1. 화상석 139
- 2. 화상전 154
- 3. 벽화 157
- 4. 백화(帛畫) 160

### 6장 한대 청동기의 발견, 기록과 연구 163

- 1. 한대 청동기의 발견과 기록 163

2. 현대 청동기의 종합연구	168
1) 현대 청동기 제조업 연구	170
2) 현대 청동기명문 연구	172
3) 현대 청동기 기물학(器物學) 연구	177
3. 현대 청동기 연구의 평가와 전망	182

## 7장 진한 시기 칠기의 발견과 연구 185

1. 진대 칠기의 발견과 연구	185
2. 현대 칠기의 발견과 연구	188
1) 현대 칠기의 연구	188
2) 현대 칠기 제조업의 판리	190
3) 현대 칠기의 공예기술	194
4) 현대 칠기의 종류와 공예 특징	195

## 8장 현대 방직품의 발견과 연구 201

## 9장 현대 변세 유적 및 간독의 발견과 연구 213

1. 제1단계(1906~1949년)의 발견	213
1) 스타인의 발견	213
2) 주병남의 발견	216
3) 중국-스웨덴 서북과학고찰단의 발견	216
4) 서북과학고찰단의 발견	218
2. 제2단계(1949년에서 현재까지)의 발견	219
1) 거연한간의 신발견	219
2) 돈황한간의 신발견	220
3) 서역한간의 신발견	223
3. 중국 서북지구 출토 한간의 연구	224

## 10장 진한 무덤 출토 간백의 발견과 연구 231

1. 진간의 발견과 정리	231
1) 운몽 수호지 진간	231

2) 청천 학사평 진간	234
3) 천수 방마탄 진간	234
4) 운몽 용강 진간	235
5) 강릉 양가산 진간	236
6) 강릉 왕가대 진간	236
7) 사시 추가대 진간	237

## 2. 현대 간백의 발견과 정리 237

1) 무위 『의례』간	239
2) 입기 은자산 한간	239
3) 마왕퇴 한묘의 간독과 백서	240
4) 강릉 장가산 한간	244
5) 연운강 윤만 한간	244

## 3. 진한 무덤 출토 간백 연구 개요 245

1) 일서간(日書簡)의 연구	245
2) 법률류 간독의 연구	246
3) 마왕퇴 간백의 연구	247

## 11장 진한 시기 주변지역 민족의 고고학 발견과 연구 253

1. 흉노의 고고학 발견과 연구	253
2. 오환과 선비의 고고학 발견과 연구	257

참고문헌 265

옮긴이의 글 267